



남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천상의 메시지



이 메시지들은 사랑으로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에큐메니컬 운동의 일환으로 천상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에큐메니컬 성지 공식 간행물 (Holy Love, an Ecumenical Ministry)

2021년 1월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에큐메니컬 평신도 사도직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821 조에는 에큐메니즘 운동에 관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동 기도. 마음의 회개와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한 사적 공적 기도와 더불어 일치 운동의 혼으로 여겨야 하며, 마땅히 영적 일치 운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의 모후와 수많은 성인과 천사들이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 발현하고 계십니다. 미국인 목격증인인 모린 스위니-카일 (Maureen Sweeney-Kyle)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영혼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 곧,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해서 개인적 거룩함으로 가는 여정으로 이끕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모든 신앙의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기도는 보편적 언어입니다.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천상이 이 성지에서 주시는 평화를 함께 누리도록 모든 순례자를 초대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다음 ‘기도의 날’과 ‘세 가지 축복’

2021년 4월 11일 (일) - 하느님의 자비 축일

“나의 다음번 세 가지 축복은 하느님의 자비심의 축일인 4월 11일에 너희에게 쏟아져 내릴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 / 2021년 1월 11일)

■ 2021년 1월 1일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및 성탄 팔일 축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지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는 다 나의 자녀이며, 나는 그들의 어머니다. 여느 어머니처럼, 나 또한 내 자녀들의 필요를 돌보기를 원한다. 나는 내 자녀들이 모든 필요에서 기도를 통해 신뢰를 가지고 나에게 의지하기를 바란다. 나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내 사랑하는 아들의 성심으로 가져간다. 그분은 내 기도를 경청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신다.”

“그러므로, 어떤 현 순간이든, 너희의 필요에서 너희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새해에는, 너희가 이 사실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일년 내내 계속해서 기도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갈라 6:7-10):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롱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의 욕에 뿌리는 사람은 욕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 2021년 1월 2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새해가 시작되는 이때 힘을 얻어라. 너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현 순간들을 한 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이 현 순간들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잘 살아낸 선물로서 나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 이 현 순간들은 내가 세상의 미래를 만드는 데 사용하

는 도구들이다. 교회와 세상에서 정치가 반드시 분별되어야 하는 요즘 시대에 영혼들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통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야만 한다. 사탄은 여러가지 모습으로 위장한다. 사탄의 가장 효율적인 위장은 선의 옷을 입고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그자는 자신의 계획을 영혼 또는 전 세계를 위해 좋은 계획인 것처럼 보임으로써 영혼들에 대한 자신의 뜻을 홍보한다. 한 예로 낙태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거룩한 사랑의 체로 걸러 내어 너희의 양심을 깨끗이 유지하여라. 너희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 등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생각할 때, 거룩한 사랑의 규범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라.”

+ 성경 구절 독서 (갈라 5:13-15):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한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한다면, 서로가 파멸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 2021년 1월 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너희가 너희의 영성을 이 세상의 혼란의 안개를 뚫고 환히 빛나는 빛으로 보기 바란다. 이것이 세상의 일들에 대한 걱정을 물리치는 방법이다. 나는 언제나 세상의 실정을 정확히 알고 있다. 나는 오직 나의 정의(심판)를 완화시키고 세상이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돌아오도록 이끄는 일들만 허락하고 있다. 만약 너희가 나를 사랑이 가득하고 자비로운 하느님으로 여기며 나에게 기도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양심을 바로잡기 위해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공정하고 의로운 사람은 수많은 보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영혼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너희의 믿음이 너희를 아는 모든 이에게, 또 어떤 식으로든 너희가 삶에 영향을 주었거나 장차 영향을 주게 될 모든 이에게 한줄기 빛이 되게 하여라.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도 너희와 내가 함께 헤쳐나가지 못할 일은 없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9:10-11):

주님께서는 억눌린 이에게 피신처, 환난 때에 피신처가 되어 주시네. 당신 이름을 아는 이들이 당신을 신뢰하니 주님, 당신을 찾는 이들을 아니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 2021년 1월 4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

니다. “자녀들아, 이제 너희가 미국인으로서 너희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도 안에서 일치해야 하는 시급한 때가 되었다. 헌법은 천상의 영감에 따른 문서이며, 너희 나라(미국)의 건국의 기초가 되었던 문서다. 이 중요한 ‘건국 문서’를 중심으로 하는 일치를 잃는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너희의 독립권을 잃는다는 것이다.”

“(미국) 헌법은 독립 선언서 작성 이후 민주주의의 수호천사가 되어 왔다. 바야흐로 헌법의 중요성이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허물어지는 것을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지 마라. 이 나라는 언제나 외세의 혼란 속에서도 나의 의로움의 손가락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사악한 세력들이 일반 투표를 통해 이것을 너희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또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깨달아라.”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6:10-18):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쓰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 2021년 1월 5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법은 헌법을 준수하는 행위를 폄하하는 것이다. 오직 그렇게 될 때에만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공직에 선출된다. 너희 나라 곧, 미국은 현재 이 길을 가고 있다. 너희 나라가 건국될 때 기초가 되었던 바로 그 법에 대한 불순종은 나라 전체는 물론 정부의 견제와 균형 제도로 하여금 모두 헌법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이런 사고방식은 애국자가 아니라 외부의 권력주의자들이 부추긴 것이다.”

“진정한 애국자들은 건국의 아버지들의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법에 모든 행위의 입증을 둔다. 미국인들이 이 진리들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여라. 나는 너희 나라 전체가 새롭게 다시 ‘진리의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

+ 성경 구절 독서 (골로 2:8-10):

아무도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이 세상의 정령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와 권력들의 머리입니다.

* '진리의 세례'에 대한 메시지는 한국어 웹사이트의 '주제별 메시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1월 6일 - 주님 공현 대축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대항하기 위해 결집했던 전반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들인 너희는 용감하게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를 대변해야만 한다. 자신들이 무엇을 수용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비열한 의견과 잘못된 행동 때문에 좌절하지 마라. 수많은 잘못된 정보로 질식하고 있는 사회에서 신선한 공기가 되어라. 계속해서 오류에 맞서서 언제나 의로움이 울려 퍼지게 하여라. 나는 이 목적을 위해 너희와 함께 하며, 너희에게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나의 지지의 손길을 보낸다.”

“진리 안에서 꾸준히 인내할 수 있도록, 또 진리 안에서 사는 이들이 남아있는 작은 소수의 무리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 안에서 꾸준히 인내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여라. 진리는 정직함이다. 정직함이 미래의 모든 정치적 추구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2 티모 4:1-5):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곁고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여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 **2021년 1월 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과정에 외세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너희 나라는 이제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외부 세력 때문에 나와

각 영혼의 관계가 달라져서는 안된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다. 지상의 어떤 권력도 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나의 성심 안에는 너희의 자유와 안전, 너희의 선택할 권리, 또 무엇보다도 너희의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우울해 하거나 중압감을 느끼지 마라. 어떤 외부 세력도 너희로 하여금 나에게 대한 너희의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항상 자유로울 것이다. 나의 계명이 너희 마음과 삶을 다스리게 하여라. 이것이 참되고 영원한 평화로 가는 길이다. 이것이 너희 마음과 삶 속에서 진리가 승리하도록 허락하는 길이다. 이것이 온 영원 내내 가치를 지니는 승리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4:9):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저는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이 듭니다.

* 2020년 11월 3일 열렸던 미국 대통령 선거

■ **2021년 1월 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현대 이동 수단과 통신 수단으로 인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손쉽게 영향을 주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악한 여러가지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나 생활 방식, 옷차림 등은 더이상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다 퍼져 있으며, 이것들은 대중 매체의 악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너희는 나의 남은 신자들(Remnant Faithful)로서, 절대 너희 온 주변에서 확산되고 있는 악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된다. 내가 이때까지 너희에게 지시해온 대로, 기도 안에서 일치하고, 의로움과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라. 부정적인 세상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지녀라. 너희가 현세에서는 전혀 보지도, 또 알지도 못할 사람들이라 해도, 너희의 기도는 한 번에 한 사람씩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준다.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너희의 기도를 사용하게 하여라. 그리고 절대 낙담에 넘어가지 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온 주변에 혼란과, 예측할 수 없는 사태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나는 너희가 나쁜 자들과 다른 이들의 최악적인 결정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나는 바로 너희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진리 안에서 강화시켜줄 것이다.”

“사탄은 너희가 너희의 최선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를 바라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나에게서는 너희의 노력이 전부다.”

+ 성경 구절 독서 (티토 2:11-14):

과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고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 줍니다.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어, 선행에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 **2021년 1월 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 때문에 악의 교묘한 술책이 너희 나라(미국)를 위협에 빠트렸다. 이 악은 마음속에 있는 선을 공격하고 올바른 도덕을 위협에 빠트리는 악이다. 이 적은 병균이 아니라 자유의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적에 대한 완전한 면역 조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안녕을 공격하는 이 위협에 대한 치료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진리다. 진리는 숨은 의도나 은밀함을 수용하지 않는다. 진리는 전면적인 정직함이며, 인간의 야심 때문에 타협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너희 나라의 건국의 기초이며, 너희의 조상들이 투쟁했던 이유다.”

“너희의 목적인 정직함의 은총으로 너희 마음을 하나로 단결해 진리 안에서 일치하여라. 나는 이 노력을 존중하여 너희가 다시 한 번 나의 지배권 아래 하나의 나라로 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2 테살 2:13-15):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첫 열매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라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 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 **2021년 1월 10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제 너희의 마음을 대대로 이어지고 영원히 지속되는 나의 지배권에 완전히 의탁하여라. 이 내맡김 안에 나의 안배에 대한 너희의 신뢰가 있다. 너희는 내가 드러나지 않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또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뢰하는 이는 언제나 나의 다음 행동, 다음 징표, 다음 은총의 안배를 기다린다. 그러므로, 신

뢰하는 이는 희망을 잃는 법이 없으며, 결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다.”

“나는 어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기꺼이 진리를 옹호하는 용감한 이들을 통해 활동한다. 이런 유형의 지도자가 바로 너희가 타협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너희의 신뢰를 둘 수 있는 지도자다. 용감한 이들은 자신의 안녕에 대한 어떠한 위험이나 위협에도 중간에 항로를 바꾸지 않는다. 이런 이들은 진리 안에서 확고부동하게 서 있기에, 믿을 수 있는 진리의 용사인 것이다.”

“나의 두 팔은 건국 이념을 따르기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는 이 나라(미국)를 껴안고 있다. 너희 정부의 양심은 일부 지도자들이 진리로 제시하는, 진리의 타협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 성경 구절 독서 (로마 8:24-25):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 **2021년 1월 11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다음번 세 가지 축복은* 하느님의 자비심의 축일인 4월 11일에 너희에게 쏟아져 내릴 것이다.”

* 하느님 아버지의 세 가지 축복 (빛의 축복,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계시된’ 축복)에 관한 정보는 ‘하나되신 성심의 메시지’의 공지 사항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1월 11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궁극에는 각 영혼은 가장 먼저 나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나의 심판은 언제나 마음속 거룩한 사랑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모든 결정 곧,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는 오직 그 순간 영혼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사랑에 의거해서만 가치가 있을 뿐이다. 한 사람의 세속적 삶을 이루는 이 모든 순간들이 합쳐져 영혼의 영원한 목적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영원을 보내고 싶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내가 너희와 낙원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각각의 계명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여라. 너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이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훔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 그리고 세상의 모든 쾌락보다 나를 더 사랑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다. 소유물이나 안락, 또는 세속적 지위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라. 성경을 통해 나를 좀 더 잘 알고자 노력하여라. 이 모든 것 안에서, 너희를 나에게 가까이 머무르게 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나는 각 영혼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를 갈망한다. 그러나 나에게 의지하고, 나의 것이 되어라. 나는 신성한 사랑 안에서 너희를 감싸 안기를 기다린다.”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3:18-24):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21년 1월 12일. 저는 (모런)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너희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또다시 말하고 있다. 국제적인 안녕과 개인의 안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악이 있는 그대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류로 하여금 계속해서 왜 특정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지에 관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인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에 관해서 허를 찔리고 있다. (모든 것을 끝이론대로) 믿는 사람은 악의 사악한 음모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

“그러므로, 나는 사탄의 존재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단일 세계 질서(One World Order)’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탄의 계획에 대해 너희 마음속 지혜를 증진시키기 위해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단결할 때, 그들은 반드시 인도를 받아야 한다. 사탄은 악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단일 세계 정부’와 ‘단일 세계 종교’, 이 두 가지를 모두 제안하고 있다. 이 세대가 의로운 지혜, 천상적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이것은 영혼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떻게, 또 어디로 인도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야고 3:13-18):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롭고 총명합니까? 그러한 사람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 자기의 실천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진 시기과 이기심을 품고 있거든, 자만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

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시기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수하고, 그다음으로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며, 자비와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속에서 심어집니다.

■ 2021년 1월 13일. 저는 (모런)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기도에 쓰여진 모든 순간들은 너희 마음을 나의 성심에 묶는 영적 자석과 같다.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 놓기 위한 사탄의 계획인 여러가지 분심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하루하루의 모든 순간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며, 나와 의 보다 깊은 영적 관계어로 부르는 나의 초대다.”

“너희는 너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일들을 그저 나의 안배에 의탁해야만 한다. 나는 너희가 어떻게 주의를 빼앗기는지, 또 왜 분심이 드는지를 본다. 이런 분심들은 오히려 너희가 기도를 바쳐야만 하는 상황들인 경우가 매우 많다. 나는 보통 너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너희 자신보다 더 잘 안다. 그렇기에, 수많은 지향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이런 행동은 그저 너희가 나의 전능한 지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만 나타낼 뿐이다. 너희의 모든 지향들을 하나하나 다 청원하는 데 바쳤을 그 시간을 나에게 양보하고, 그저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진심어린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하여라. 나는 현 순간의 이런 기도를 거절할 수가 없다.”

+ 성경 구절 독서 (갈라 6:7-10):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롱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의 육에 뿌리는 사람은 육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 2021년 1월 14일. 저는 (모런)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과거를 결정하였고 또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은 바로 자유의지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너희에게 알려준다. 너희의 뜻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형성되어 있고 거룩한 사랑을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는 매 현 순간 함께 활동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자유의지 선택은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너희의 선택은 나의 뜻에 맞지 않

게 된다. 그때에 나는 자유의지의 결과로서 부정적인 해결책이 발 생하는 것을 허락한다.”

“너희가 기도를 하면, 너희는 어떻게, 그리고 왜 특정한 일들이 일 어나고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지 이해하게 된다. 너희의 주님인 나는 자유의지 선택에 간섭하지 않는다. 인간을 위한 나의 뜻은 그들의 선택이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지상의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 들이 그들을 나의 뜻에서 멀리 데려가버린 시대이며, 수많은 죄없 는 영혼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인류가 나를 기쁘게 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나에게서 스스로 멀어져가고 있는 시대다. 나는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 나에게 대한 인류의 무관심의 결과로서 특정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어떤 영혼이든 나에게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15-17):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 **2021년 1월 15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 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낙심의 영이 너희 기도에서 그들을 드리우게 허락 하지 마라. 악에 맞서 싸우는 선으로서 서로 일치하여라. 너희가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너희는 여전히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사탄의 진정한 승리는 너희의 기도를 중지시키고 기도에서 너희의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게 하는 데 있다. ‘성모송’* 하나하나의 변화를 가져오며, 사탄을 약화시킨다. 그자는 너희가 이 사실을 깨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기도하는 이상, 너희는 사탄의 전반적인 계획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수많은 작은 승리들을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너희는 보통 너희의 기도가 사악한 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지 못한다. 만약 너희가 일생을 기도하고도 그저 단 한 명의 영혼만 구제한다 하더라도, 너희의 삶은 승리한 삶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많은 묵주기도는** 많은 영혼들 곧, 너희가 내세에 가서야 만나게 될 영혼들을 구한다.”

“너희가 묵주기도를 바칠 때, 거룩한 성모가 너희의 손을 잡고 있다. 어떤 기도든 기도는 천상과 지상 사이의 심연을 이어주고, 사람들의 동기와 사건과 그 밖의 많은 것들을 바꾼다. 그러니 겨자씨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17:6):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나무더러 ‘뽕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마리아께서 성령께 탁월하게 협력하신 사실을 토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에서 드러난 그분의 위격에 초점을 맞추어, 천주의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를 발전시켜 왔다. 이 기도를 표현하는 수많은 찬미가와 후렴 안에는 흔히 두 가지 움직임이 번갈아 나타난다. 하나는 주님께서 당신의 비천한 여종에게, 그리고 이 여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해 주신 “큰일”에 대해 주님을 “찬양하는”(magnificat) 것이며,23)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께 하느님의 자녀들의 애원과 찬미를 맡겨 드리는 것인데, 이는 마리아께서 이제 하느님의 아들이 자신 안에서 마치 신부(新婦)처럼 취하신 그 인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가톨릭 교리서 2675 항)

** 묵주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 역사의 주요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데 있다. 묵주기도는 그리스도의 삶에 초점을 둔 네 가지 종류의 신비들로 구성되어 있다: 환희와 고통과 영광의 신비, 그리고 2002년 교황 성 바오로 2세에 의해 추가된 빛의 신비가 있다. 묵주기도는 성서에 입각한 기도이며, 사도신경으로 시작한다. 각 신비의 서두에는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가 있고, 성모송의 첫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가브리엘 대천사의 말과 마리아를 향한 엘리사벳의 인사로 이루어져 있다. 성모송의 후반부는 교황 성 비오 5세에 의해 공식적으로 첨가되었다. 묵주기도의 반복적인 기도는 각각의 신비에 대한 평화로운 관상 기도로 이끄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부드럽게 반복적으로 소리내어 바치는 기도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머무르시는 우리 마음의 고요함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묵주기도는 혼자서 또는 여럿이 함께 모여 바칠 수 있다.

■ **2021년 1월 16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 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과 향후 몇 년은 이 나라(미국)에 긍정적인 지도부를 약속하지 않는다. 나와 견고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책임자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인데, 이것은 그들의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들의 정책은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나를 섬기는 데서 오는 기쁨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만 한다. 특정 부분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너희의 마음이 거룩한 사랑 안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너희는 진리 안에서 견디고 인내할 것이다.”

“아무도 너희 마음속 믿음, 그리고 너희가 품고 있는 나에게 대한 사랑과 나의 계명에 대한 사랑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너

희 각자에 대한 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신뢰하여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용감하게 서로 일치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4:4):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심을 알아라.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들어 주신다.

■ 2021년 1월 1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몇 달 전 너희 나라(미국)는 엄청난 사악한 행위가 배후에서 은밀히 이루어졌던 대통령 선거를 치루었다. 그 일은 끝났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경쟁은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과 악의 전투다. 너희의 영원이 이 전투에 걸려 있다. 너희가 숨을 쉬고 선택을 할 수 있는 한, 이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너희의 영혼을 영원히 잃어버린다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미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구원을 향한 이 전투에서 싸우는 쪽을 택한 이들은 나의 강력한 도움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승리를 거머쥌 수 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하여 (선과 악의) 전쟁이 없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누구든 언제나 승리를 거머쥌 수 있다. 각 영혼은 승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쪽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 선택은 매 현 순간 내려져야 한다. 너희의 승리는 죄에 대한 승리가 되어야만 한다. 죄를 너희의 적으로 간주하여라. 죄에 맞서 전쟁을 일으켜라. 너희가 선과 악에 대한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1베드 1:22-23):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져 진실한 형제애를 실천하게 되었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씻어 없어지는 씨앗이 아니라 씻어 없어지지 않는 씨앗, 곧 살아 계시며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 태어났습니다.

■ 2021년 1월 1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지금은 용기와 믿음이 너희 마음을 다스려야만 하는 시간이다. 나는 오로지 마음만을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권력과 돈과 영향력이다. 이것들은 세속적인 기준이며, 적그리스도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짓 일치로 조장한다. 나는 너희를 진리 곧, 거룩한 사랑에 근거한 진리 안에서의 일치로 부른다. 이것은 모두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의 집을 건설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끝이 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낙담하지 마라. 너희 마음속 의로움의 승리는 손이 닿는 곳에 있다. 매 현 순간이 이 사실을 증명한다.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의 일치하는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가득 찬 거룩한 사랑에 있다. 진리로 너희 마음의 경계를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일치와, 모든 이를 위한 정의와 함께 나(하느님) 아래 하나의 나라가 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112):

할렐루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들로 큰 즐거움을 삼는 이! 그의 후손은 땅에서 융성하고 올곧은 이들의 세대는 복을 받으리라.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의로움은 길이 존속하리라.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잘되리라, 관대하게 꾸어 주고 제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이! 정녕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의인은 영원한 기억으로 남으리라.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은 주님을 굳게 신뢰하네. 그의 마음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네, 자기 적들을 내려다볼 때까지. 불쌍한 이들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길이 존속하고 그의 뿔은 영광 속에 치켜들리리라. 악인은 이를 보며 울화를 터뜨리고 이를 갈며 스러지는구나. 악인들의 욕망은 허사가 되는구나.

■ 2021년 1월 1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승리와 패배에 대해 너희에게 말하기 위해 또 다시 왔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승리는 자신의 구원이며, 가장 큰 패배는 자신의 영혼을 잃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이든 승리와 패배 이 두 가지 모두 영혼의 손 안에 있지만, 특히 죽음의 순간에는 더욱 그러하다.”

“가까이에 있는 승리는 언제나 진리의 영인 성령의 지도 아래 있어야만 한다. 사탄은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서 앗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 지도자들이 성령에 따라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대부분의 경우 정부는 진리의 영이 아니라 정치적 야심에 의해 움직인다. 진리란 바로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너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사실이다. 너희의 패배란 바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삶’이다.”

■ 2021년 1월 1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에 대해 말할 때, 나는 내가 지배하고 있고 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상황이나 정책, 또는 영혼의 마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일치다. 이것이 내가 각 영혼에게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는 승리다. ‘단일 세계 질서(One World Order)’는 나의 일치의 호소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시대의) 도래다!”

“너희 나라(미국)는 바야흐로 여러가지 해로운 정책들로 인해 변화되고 약화될 시점에 놓여 있다. 너희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정부 내의 견제와 균형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선교사업은 진리의 보장을 나타낼 것이기에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교사업이 될 것이다.”

“오늘 나는 모든 영혼에게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승리를 받아들이기를 청한다. 인간의 마음의 사적인 사정이나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인 나와 영혼의 관계를 파괴하는 법이란 없다. 너희 나라의 민주주의적인 영혼의 파괴에 직면하여 너희 자신의 개인적 거룩함의 ‘집’을 튼튼하게 지어라. 민주주의는 죽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부르는 승리를 너희가 거머쥐기만 한다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2 테살 2:9-15):

그 무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작용으로, 그는 온갖 힘을 가지고 거짓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며, 멸망할 자들을 상대로 온갖 불의한 속임수를 쓸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여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을 속이는 힘을 보내시어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모두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첫 열매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라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 2021년 1월 20일. 저는 (모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영원한 현재’인 나는 너희 나라(미국)의 마음을 이해한다. 너희는 언제나 나의 소유의 하나의 나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위대한 나라의 지도부는 이제 이 나라의 영혼이 원하는 것에 부합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를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화시키고, 또 진리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 많은 칙령이 시행될 것이다. ‘진리’라는 용어는 이미 모독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진리 안에서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의 ‘집’을 튼튼하게 지으라고 말하는 이유다.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라. 나에게 대한 사랑 안에서 일치하여라. 이렇게 하는 이들은 결코 마음이 ‘새로운 세계 질서(New World Order)’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참된 진리의 승리의 군대에 속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더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마음 쓰지 말고, 악과 싸우는 데 너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의 힘에 집중하여라.”

“너희가 패배했다고 믿는다면, 너희는 패배한 것이다. 기도의 힘을 믿어라. 이것이 악에 대한 선의 승리다.”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2:1-2):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누는다면,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4:4-7):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 2021년 1월 21일 - 신앙의 보호자이신 마리아 축일 - 35주년 기념일. 저는 (모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개인적 거룩함을 받아들이고, 이 (개인적 거룩함의) 관점에서 너희 마음의 안식처를 견고하게 짓도록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현세에서 일시적인 것이 아닌 것은 오로지 이것뿐이다. 너희의 마음이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받아들이게 하여라. 이 계명들 중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바로 나(하느님)를 만유 위에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모든 계명들에 순종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 마음속에서 너희가 거뒀어만 하는 승리다. 이것은 단지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매일 매일, 순간 순간 싸워야만 하는 전투다.”

“수십 년 전 바로 이 날, 나는 거룩한 성모를 이 메신저에게* 보냈었다. 마리아는 나의 명에 따라 ‘신앙의 보호자’로 알려지기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내에서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묻는다: 오늘날 세상에서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한 번 살펴봐라. 세상이 얼마나 마리아의 거룩한 보호를 절실히 필요로 하느냐! 마리아는 누구든 이 칭호로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 즉시 그를 도우러 온다. 오늘날의 문제는 사람들이 무엇이 그들의 믿음에 도전하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믿음은 더이상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니, 너희 마음속에서 부디 개인적 거룩함의 승리를 거두기를 청하며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오는 것이 놀랄 일이겠느냐?”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3:19-24):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모린 스위니-카일 (Maureen Sweeney-Kyle)

** 클리블랜드 교구의 주교는 ‘신앙의 보호자’라는 칭호를 승인해 달라는 우리 모후의 청에 대해 한 명의 신학자와 검토한 후, 성모님과 성인들에 대한 신심이 이미 너무 많이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우리의 모후께서는 1987년 클리블랜드 주교에게 이 칭호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셨습니다.

■ 2021년 1월 22일 - 국가 인간 생명 존엄의 날*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너희와 나의 관계다. 따라서 너희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지 않은 채 지나가는 날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나는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나를 기쁘게 한다고 너희에게 말해주었다. 그렇다, 그것은 진정 내 마음에 든다. 너희의 기도와 희생 또한 나를 기쁘게 한다. 내가 계속 너희 하루의 일부가 되게 하여라. 나는 여러가지 크고 작은 일에서 너희를 도와주는 것이 즐겁다.”

“성공에 대한 너희의 갈망의 초점을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의 집을 더 튼튼히 짓는 데 맞추어라. 이것은 실로 모든 승리 중에서 가장 큰 승리이며, 이 승리는 정말 너희 손이 닿는 곳에 있다. 너희도 알다시피 지금은 사악한 시대다. 너희의 기도와 희생은 너희를 신과 논란의 바다를 건너가는 배의 돛과 같다.”

“너희 나라(미국)가 낙태죄를 회개하도록 기도하여라. 이것이 너희 나라 정부가 가라앉게 만드는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 구절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어라. 나는 내가 창조한 수없이 많은 생명이 파괴되어버린 지금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다. 나의 자비는 완전하기 때문이다. 회개 없이 수많은 생명이 파괴되었듯이 너희 나라 정부도 현재 파괴되고 있는 중이다. 회개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요나 3:1-10):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이 소식이 니네베 임금에게 전해지자, 그도 왕좌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자루옷을 걸친 다음 잣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니네베에 이렇게 선포하였다. “임금과 대신들의 칙령에 따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아무 것도 맛보지 마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루옷을 걸치고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 2021년 1월 17일 일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2일을 ‘국가 인간 생명 존엄의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이 세상에 대한 선물입니다. 태어나든 태어나지 않았든, 절든 늙든, 건강하든 아프든,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과 아름다운 꿈, 그리고 위대한 목적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기념하는 이 날에, 우리는 인간 존재에 대한 경이로움을 축하하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보호받고, 가치를 인정받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생명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 2021년 1월 2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세계 곳곳에서 낙태가 시행될 때마다 천상과 지상 사이의 심연이 넓어진다. 도덕은 더 타락하고, 정부들은 한층 더 부패해지며,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상실된다. 과학 기술은 오용되었고, 진리는 타협되고 모독되었다. 이제, 한때 위대했던 이 나라(미국)는 사람들에게 낙태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주었다. 나는 사람들(자유의지)이 자신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깨닫기를 기다려왔다. 이 나라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도덕적 타락에 찬성하지 않지만, 이 선한 사람들은 지배층이 아니다.”

“그러나 기도와 희생은 어떠한 사악한 자유의지의 행동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나라 국민들이 기도와 희생을 통해 너희 나라와 세상의 미래의 행로를 바꾸는 일에 헌신할 것을 청하고자 너희 나라의 마음에 말하기 위해 왔다. 이 나라의

영혼은 이 나라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의 타협된 마음이 저지른 죄들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범국가적인 회개를 위한 너희의 숭고하지만 감춰져 있는 노력을 사탄이 좌절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마라. 너희 정부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낙담하지 마라. 그들의 모든 활동은 대중의 눈앞에 드러나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기도와 희생이라는 너희의 용감한 노력은 바로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으며, 너희의 기도와 희생은 나의 자비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지게 만든다.”

“어떤 과학 기술도 기도와 희생에 대한 너희의 노력을 흐트러뜨리지 못한다.”

+ 성경 구절 독서 (요나 3:1-10):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이 소식이 니네베 임금에게 전해지자, 그도 왕좌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자루옷을 걸친 다음 잣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니네베에 이렇게 선포하였다. “임금과 대신들의 칙령에 따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아무 것도 맛보지 마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루옷을 걸치고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 2021년 1월 24일. 저는 (모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현재다. 이제 수많은 악 속에 빠져 있는 이 나라(미국)가 이런 악들을 뒤집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보속이고, 또다른 하나는 참회다. 이 두 가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속은 낙태라는 중죄로 인해 상처 받은 나의 부성적 성심과 예수 마리아의 하나된 성심을 고쳐준다. 이것은 기도와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 나는 이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통해 수십 년에 걸쳐 너희에게 이것을 요청해 왔다. 이 나라의 마음이 실행해야 할 또다른 가장 중요한 행위는 바로 참회다. 참회란 죄악의 행실에서 돌아서서 나의 자비에 완전히 의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보속과 마찬가지로 죄에 대

한 통회를 뜻한다. 참회는 영혼이 현재 자신이 나아가고 있는 길 이 파멸의 길임을 깨닫고 의로움의 길을 추구하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낙태에 참여했거나 지지했던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악은 이 나라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 부정한 야심이 이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선은 서로 연합하여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또 바라고 있는 승리를 추구해야만 한다. 이것은 개개인이 노력함에 따라 성취될 수 있다.”

+ 성경 구절 독서 (1 티모 2:1-4):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청과 기도와 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우리가 아주 신심 깊고 품위 있게,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느님께서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 성경 구절 독서 (히브 3:12-14):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 계신 하느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는 말이 들리는 한 여러분은 날마다 서로 격려하여,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완고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료가 된 사람들입니다. 처음의 결심을 끝까지 굳건히 지니는 한 그렇습니다.

■ 2021년 1월 25일. 저는 (모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미국) 전체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각 영혼으로 하여금 자신이 내 앞에서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 나라가 구제되는 데 필요한 구원적인 진리다. 이것은 이 나라의 마음이 참회를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진리다. 각 영혼은 야심이나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이 진리에 마음을 열어야만 한다.”

“모든 이를 용서함으로써 시작하여라. 너희 마음속에 어떠한 원한도 품지 마라. 원한은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사랑의 한 형태다. 내가 너희 마음과 삶, 그리고 너희 주변 세상을 지배하도록 기꺼이 허락하여라. 어떤 성과든 너희가 스스로 성취한 것이라 여기지 말고 항상 나의 안배에 감사하여라.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신뢰하여라. 나의 뜻은 언제나 너희의 구원을 위해 너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보호하고 베풀다.”

“세상의 마음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참회가 모든 이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야만 한다.”

+ 성경 구절 독서 (히브 3:12-13):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 계신 하느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는 말이 들리는 한 여러분은 날마다 서로 격려하여,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완고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십시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1:1-6):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

■ 2021년 1월 2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나라(미국)의 정권을 장악한 세력들의 전반적인 여러 계획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하며, 너희 나라와 나의 성심 사이의 심연이 더욱 넓어질 것이다. 이제 너희가 바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는 너희 나라 지도자들의 마음속에서 양심의 깨우침이 이루어져 그들이 의로움의 길로 되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 나라 정부가 더이상 너희 나라의 영혼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의 결과로 인해 이제 의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낙태 자유화라는 새로운 정책은 명백하게 나의 정의를 불러들인다. 따라서 앞으로 수많은 ‘자연’ 재해는 물론 여러가지 인위적인 상황과 문제 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 현 순간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지는 마라. 나의 ‘현 순간의 은총’을 신뢰하여라. 이 은총은 보통 예기치 않게 다가오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준다.”

“너희 마음속의 거룩한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초월하게 하여라. 나는 어디에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4:6):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 2021년 1월 2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각 영혼이 자신의 자유를 기념하도록 초대한다. 나는 자신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영혼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자녀들아, 어떤 정치인 또는 독재자도 너희의 자유의지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 수 없다. 너희는 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럼으로써 나를 기쁘게 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선택은 너희에게 나와 함께 천국을 누리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나는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 너희가 매 현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사악하며, 정치인들은 악을 달성하기 위해 너희의 선택들을 앗아가는 데 그들이 가진 인간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오로지 마음만을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각 영혼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심판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세상의 마음을 참회어로 부르는 이유다. 너희의 자유의지 선택들을 통해 의로움의 길을 걸어라. 아무도 너희를 대신해 이 선택들을 내려줄 수 없다.”

+ 성경 구절 독서 (갈라 6:7-10):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롱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의 욕에 뿌리는 사람은 욕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 2021년 1월 28일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 학자 기념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성인의 눈동자는 검은색입니다.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어렸을 때 자매님(모린)은 종이 인형들을 많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자매님은 인형들의 옷을 금방 금방 바꿀 수 있었고, 그러면 그 인형들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빠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안에서부터 달라지기를 바라시며,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감탄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걸로 보이는 종이옷이 아니라 오직 자유의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 2021년 1월 2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 나라(미국)의 역사에 관련된 너희의 유산을 놓치지 마라. ‘단일 세계 질서 (One World Order)’는 너희가 더 이상 한 나라로서 사고(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건국의 아버지들과 과거 대통령들, 그리고 개혁자들의 고귀한 노력 등에 관한

모든 역사는 헌법을 짓밟고 이 위대한 나라의 국경을 없애고자 하는 자들에게 위협이 된다. 이자들의 노력은 ‘새로운 세계 질서 (New World Order)’의 시대를 여는 데 집중되어 있다. 다시 한번 너희에게 말하지만, 새로운 세계 질서란 적그리스도 (시대)의 도래다.”

“나는 너희의 애국심을 장려한다. 젊은 세대에게 이 나라의 토대가 되었던 용감한 역사를 전해주기 위해 노력하여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고, 지금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망각하지 마라. 현충일 (Memorial Day)이나 독립 기념일 (Independence Day), 국기 제정 기념일 (Flag Day) 같은 너희의 전통을 유지하여라. 너희 나라의 영혼이 계속해서 과거의 영웅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새로운 애국적 영웅들을 양성할 준비가 되어 있게 하여라.”

“너희 나라는 힘이 빠져 ‘단일 세계 질서’의 악에 굴복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 버렸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나는 너희가 나(하느님) 아래 하나의 나라로 굳건하게 서 있기를 요청한다.”

+ 성경 구절 독서 (골로 2:8-10):

아무도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이 세상의 정령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와 권력들의 머리입니다.

■ **2021년 1월 30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메신저(모린)야, 나는 일전에 장차 의인들도 악인들과 같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너에게 말해준 적이 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너희 ‘대통령’은 비양심적인 낙태 정책들로** 나의 진노를 불러들이고 있다. 나의 정의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나의 정의의 저울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머지않아 너희가 오늘과 같이 엄중한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더이상 없게 될 것이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조차 낙태가 합법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상기시켜 준다.”

“오늘 나는 다시 한 번, 이 나라(미국)의 양심이 참회하기를 요청한다. 나의 진리의 전사들은 전임 대통령 (트럼프)을 잃은 것을 애석해하는 가운데서도 불법적으로 너희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현 지도자의 잘못들에 대해서 보속을 바쳐야만 한다. 너희는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아무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너희의 진심어린 기도를 막을 수 없다. 오늘날의 악에 맞서 싸우는 최고의 무기로서 너희의 목주를 사용하여야. 나의 정의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지만, 너희의 기도는 여전히 나의 정의

를 완화시킬 수 있다. 나는 모든 자비이기 때문이다. 기도와 희생으로 나의 자비에 호소하여야.”

+ 성경 구절 독서 (요나 3:1-10):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이 소식이 니네베 임금에게 전해지자, 그도 왕좌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자루옷을 걸친 다음 잣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니네베에 이렇게 선포하였다. “임금과 대신들의 칙령에 따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아무 것도 맛보지 마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루옷을 걸치고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 성경 구절 독서 (1 티모 2:1-6):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청과 기도와 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우리가 아주 신심 깊고 품위 있게,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느님께서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제때에 드러난 증거입니다.

* 2020년 12월 14일 메시지 참조

** 2021년 1월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 시티 정책’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은 다시금 전 세계에서 낙태를 홍보하는 낙태 지원 국제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됨.

■ **2021년 1월 31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류는 나에게 빛을 쬐지만, 나는 절대 뉘우치는 마음을 거절하지 않는다. 죄에 대한 통회는 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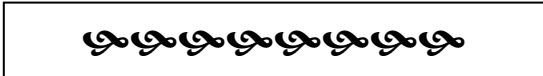
이다. 나의 자비는 대대로 이어지며 영원히 지속된다. 인간의 마음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뉘우쳐야 한다. 그러면 나의 무한한 자비로 내가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워 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나는 낙태 시행을 용이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던 정치인들에게서는 뉘우치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은 선과 악의 진리 안에서 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들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의 공직을 이용한다. 그러나 나의 계명은 영혼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에 따라 바뀌거나 굽히지 않는다. 모든 영혼은 그의 사회적 신분에 상관 없이, 나의 계명에 대한 그의 순종에 근거하여 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진리란,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이다. (잉태 순간) 그 이후에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자는 누구든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인기가 없다 하여 바뀌지 않는다.”

“인류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지나 아니면 거부하느냐가 그들의 영혼의 미래를 결정한다.”

+ 성경 구절 독서 (2 티모 4:1-5):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결코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트하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낙태 종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태아목주 (5단)



확대된 목주알



짧은 태아목주

www.RosaryOfTheUnborn.com

주문: 440-327-4532로 전화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Archangel Gabriel Enterprises Inc. 태아목주(5단): \$29.95 짧은 태아목주: \$14.95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용어 설명

목격증인, 메신저, 메시지들 (Visionary, Messenger, or the Messages):

천상이 미국인 목격증인 모린 스위니-카일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들.

선교회, 선교사업, 성지 (Ministry, Mission, Property or Site):

미국 오하이오 (Ohio) 주 노스 릿지빌 (North Ridgeville) 시에 위치한 '마라나타 샘과 성지' (Maranatha Spring and Shrine)의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에큐메니컬 선교회 및 선교사업.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본부.

영적 여정, 거룩함의 여정, 심방들 (Spiritual Journey, Journey of holiness, Chambers):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인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개인적 거룩함을 향한 영적 여정.

하나되신 성심 (United Hearts):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하나되신 성심.

남은 신자들, 남은 자 (Remnant Faithful, Remnant):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에서는 두 가지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 구절: 모든 성경 구절은 천상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한국어 성경 구절은 2005년 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새롭게 번역한 '성경'에서 발췌합니다.

정기 기도 모임

매일 목주기도 모임 (월요일 - 일요일) 오후 7시

모든 기도 모임 참가자는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이나 거룩한 사랑의 축복 또는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중 한 가지 축복을 얻으면 나머지 축복의 은총도 다 얻는 것이 됩니다. 이 축복들은 말이나 기도 지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되신 성심의 성물 센터 (UNITED HEARTS BOOKSTORE)

하나되신 성심의 성물 센터는 월요일-금요일 (11:00-5:00), 토요일 (12:00-5:00), 일요일 (1:00-5:00) 까지 영업합니다 (영업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더 자세한 정보는 440-327-4532 로 문의하시거나 성물 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RosaryOfTheUnborn.com

성지 오시는 길

마라나타 샘과 성지 (Maranatha Spring and Shrine) 는 로레인 카운티 (Lorain County)의 남동쪽에 위치한 이튼 시 (Eaton Township) 에 있으며 주소는 37137 Butternut Ridge Road 입니다. 본 성지는 미국 오하이오 (Ohio) 주 클리브랜드 (Cleveland) 시에서 서쪽으로 30분 거리에 위치하며, Route 83 번과 Lorain Road 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서쪽으로 1.3 마일 지점에 있습니다. Lorain Road 는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실 때 Butternut Ridge Road 로 이름이 바뀝니다. 본 성지는 Ohio Turnpike (I-80) 에서 방향에 관계 없이 Exit 152 번으로 나오시거나 Route 480 West (서쪽 방향) 에서 Exit 2번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80번이나 480번 고속도로에서 나오시면 North Ridgeville 시의 Lorain Road 가 나옵니다. Lorain Road 에서 서쪽 방향으로 4 마일 정도 가시면 (도로 명이 Butternut Ridge Road 로 바뀝니다) 왼쪽에 성지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월 메시지 묶음 (뉴스레터): 본 뉴스레터는 목격증인인 모린 스위니-카일을 통해 주시는 모든 메시지를 출판합니다. **영어든 한국어 번역이든** 무료 월 메시지 묶음을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신의 이름과 주소, 우표가 붙여진 하얀 편지 봉투 (사이즈: 4 1/2" x 10 3/8") 12개**를 아래 성지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요금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Forever Stamps 라고 하는 우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봉투 사용시 통보해 드리며, 그때 다시 추가로 봉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우체국에서 환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퀴나스 웰컴 센터 (Aquinas Welcome Center) 에

오시면 뉴스레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의: 주소를 적으실 때 대문자로 크게 적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 듣기 (영어): 녹음된 메시지를 듣고 싶으신 분은 (440) 327-5822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새 메시지는 가능한 한 매주 수요일 기도 모임 후에 업로드 됩니다.

이메일 수신: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이메일로 수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지 웹사이트 (영어) 에서 가입하시거나 아래 이메일 주소로 수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MAMSHL@HOLYLOVE.ORG (영어)

HolyLoveKorean@gmail.com (한국어)

웹사이트: 메시지는 검토와 승인이 끝나는 즉시 웹사이트에 올려집니다.

기도 청원

우편, 전화,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기도 청원은 성모님의 축복의 지점에 올려집니다.

전화 신청: 440-327-8039 (영어)
440-657-0113 (한국어)

이메일 신청: PRAYERS@HOLYLOVE.ORG (영어)
HolyLoveKorean@gmail.com (한국어)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연락처

우편 주소: Holy Love Ministries
37137 Butternut Ridge Road
North Ridgeville, OH 44039

아퀴나스 웰컴 센터: 440-327-8006

선교회 팩스: 440-327-8017

메시지 듣기: 440-327-5822

선교회 이메일: MAMSHL@HOLYLOVE.ORG

체험담 제출: TESTIMONIES@HOLYLOVE.ORG

자원 봉사자: VOLUNTEERS@HOLYLOVE.ORG

웹사이트: <http://www.holylove.org> (영어)

한국어 연락처: 440-657-0113 (전화)
HolyLoveKorean@gmail.com (이메일)
www.holylovekorean.com (웹사이트)